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박재연**

본고는 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 사용하는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제안하고 ‘양보, 설명, 발견’ 등의 의미 속성과 관련하여 메타언어를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종속적 연결어미의 메타언어는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 임의적 선정을 지양하고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 역방향 점검법으로 검증할 것이라는 세 가지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언어 선정에서 문제가 되어 온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어도’ 등이 표현하는 ‘양보’는 조건의 일종으로서 후행절 사태 실현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인 ‘비관여적 조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 ‘-은대’ 등에 대해서 부여되었던 ‘설명, 상황’에 비해 ‘배경’이 나온 메타언어라는 점, ‘-으니(까)’의 일부 용법은 ‘발견, 지각’ 등의 용어로 기술되었으나 이는 ‘이유’ 중 ‘인식 영역에서의 이유’로써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핵심어: 연결어미, 메타언어, 양보, 조건, 비관여적 조건, 배경, 인식 영역의 이유

1. 서론

본고는 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술하는 메타언어¹⁾ 선정의 원칙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A00265)

**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1)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란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언

을 제안하고 특히 ‘양보, 설명, 발견’의 의미 속성을 대상으로 연결어미 메타언어 선정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문법 연구는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결어미 역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김진수 1987, 윤평현 1989, 2005, 이은경 1990, 2000, 최재희 1990, 장광균 1999 등)도 많았고, 개별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그 수효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 사용된 메타언어가 언제나 적절하였던 것은 아니다. 연결어미 의미 기술에 사용된 메타언어 중에는 ‘선행, 이유, 조건’ 등 그 의미하는 바가 비교적 분명한 것도 있지만 ‘설명, 상황, 발견, 제시, 따짐’²⁾ 등 그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알기 어려운 것도 많다. ‘양보’처럼 일반언어학 논의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언어적인 쓰임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 메타언어도 있다. 또한 연결어미 의미 기술에 사용된 메타언어들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가리키기도 하고, 선행절의 특성을 가리키기도 하였으며 후행절의 특성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이렇듯 의미 부여 방식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령 ‘양보’라 하면 무엇을 양보한다는 것인지, ‘설명’이라 하면 설명의 내용이 선행절 사태인지 후행절 사태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언어를 선정하는 작업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른 의미 속성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

어 표현을 가리킨다. 이때 ‘메타언어’를 ‘의미 기능’이나 ‘의미 범주’로 부를 수도 있겠으나 본고에서 검토하는 것은 어떤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기능을 기술하는 데 적절한 언어 표현이 무엇인가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메타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논의는 연결어미 의미의 체계적인 기술을 위하여 메타언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으며 연결어미 의미 기술에 사용되는 메타언어를 통일하자는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2) ‘따짐(argumentation)’은 남기심·루코프(1983/1996: 317)에서 ‘-으니까’와 ‘-어서’의 의미를 구별하면서 ‘-으니까’에 대하여 제안한 의미이다.

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지적하는 데에만 주력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결어미 의미 분석의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학적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이다.

연결어미 의미 기술에 어떠한 메타언어를 사용하느냐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 문법 기술의 메타언어는 체계를 반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메타언어를 선정하는 일은 엄밀히는 연결어미 전체의 의미 속성을 체계화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고와 문제 의식을 공유한 선행 연구로 장경희(1995)와 이은경(2000)이 있다. 장경희(1995)는 연결어미를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화하려 한 연구로서 연결어미 의미 속성들의 계층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은경(2000)에서는 연결어미 의미 범주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하였고 아울러 연결어미의 메타언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반성이 이루어졌다.

본고는 장경희(1995), 이은경(2000)의 문제 의식을 발판으로 삼아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마련하고 메타언어 선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메타언어 선정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검토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흔히 ‘-어도’의 의미는 ‘양보’로 기술되어 왔다. 즉 “내일 비가와도 우리는 소풍을 간다.”와 같은 문장을 양보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도’의 이러한 용법은 일상적 의미의 양보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서 왜 ‘-어도’가 쓰인 문장이 양보문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본고는 양보의 본질적 의미를 재검토하고 적합한 메타언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은데’ 등의 의미는 ‘설명, 상황, 배경’ 등의 의미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명제가 표상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쓸 수 있는 말이고 ‘설명’은 기본적으로 발화의 유형의 일종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메타언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셋째, ‘-으니(까)’ 등의 일부 용법에 대하여 ‘발견’ 혹은 ‘지각’이라는 메타언어가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용법의 본질을 재검토하여 대안적인 메타언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연결어미 메타언어 선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3장에서는 이 원칙에 입각하여 위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찾아본다. 4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미진한 점을 제시한다.

2. 연결어미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

2.1. 종속적 연결어미의 메타언어는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연결어미의 의미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련성에 입각하여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에서 사용된 메타언어들 중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에 관련된 것('인과, 계기, 동시'), 선행절의 의미 속성에 관련된 것('조건, 결과, 목적'), 후행절의 의미 속성에 관련된 것('발견, 부연, 추가, 반응')³⁾ 등이 섞여 있다. 이은경(2000: 222)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기능을 아우르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편의상 선행절의 의미를 기준으로 전체 접속 구성의 명칭을 붙이자고 제안한다.

본고의 관점에서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등 접속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대등하므로 그 관계가 '순접, 이접, 역접'과 같이 절과 절의 관계에 입각하여 기술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종속 접속문은 두 절이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유현경 1986, 이익섭 2003 등).⁴⁾ 종속 접속문의 선행절이 기본적으로 부사절로서 수식의 기

3) '부연'은 최상진·임채훈(2009)에서 '-지'의 용법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었다. '추가'는 송재영·한승규(2008: 183)에서 '-더니'의 일부 의미에 사용하였고 '반응'은 송재복(2011: 191)에서 '-으니'의 일부 의미에 사용하였다.

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종속적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기술하는 메타언어는 굳이 절과 절의 관계에 초점을 둔 용어일 필요가 없고 선행절의 수식 기능에 초점을 둔 용어가 오히려 더 적절하다. 가령 “대학에 가고자 열심히 공부했다.”에서 ‘-고자’의 의미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목적’의 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기술하는 언어 표현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과’보다는 ‘원인’ 혹은 ‘이유’가 더 나은 용어이며 ‘계기’보다는 ‘선행’이 더 나은 용어라고 하겠다.⁵⁾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제안한다.

- (1) 원칙 1: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는 대등적 연결어미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 의미를 바탕으로, 종속적 연결어미는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2.2. 전체 의미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연결어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서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지만 종속적 연결어미의 하위 부류들은 나열식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 일찍이 최현배(1937)에서 ‘움직씨의 이음법’에는 ‘구속형, 방임형, 나열형, 설명형, 비교형, 선택형, 연발형, 중지형, 첨가형, 익심형, 의도형, 목적형, 도급형, 반복형⁶⁾’이 나열되어 있다. 최재희(1990)에서도 종속접속문의 하위 부류에는 ‘인과,

4) 이익섭(2003)에서는 전통문법의 용어가 생성문법의 틀로 넘어 오는 과정에서 본래 내포(embedded)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던 ‘subordinate’가 접속의 일종으로 잘못 이해되면서 이러한 혼란이 생겼다고 진단하고 부사절로서 올바른 자리를 찾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보면 본고의 ‘종속적 연결어미’는 엄밀히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될 것이나 편의상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를 쓰고자 한다.

5)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이며 연결어미의 특성에 따라 예외도 존재할 듯하다. 가령 최상진·임채훈(2009)에서는 “이건 수필이지 논문이 아니다.”와 같은 예의 연결어미 ‘-지’의 의미를 후행절의 속성에 초점을 두어 ‘부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적절해 보이며 이를 대신할 선행절에 초점을 둔 메타언어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6) 편의상 한자어식 용어로 제시한다.

조건, 의도, 대조, 양보, 순차, 설명, 전환, 비례, 비유, 결과' 등이 나열되어 있다. 서정수(1994)에서는 '상황, 계기 한정, 까닭, 조건, 시간, 양보, 목적, 결과, 전환, 첨가, 점증, 비교, 반복' 등의 의미가 나열되었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그 수효가 대단히 많은데다가 그 의미 기능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분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나열식 인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나열식 인식으로 인해 연결어미의 메타언어 역시 임의적으로 부여된 감이 없지 않다. 다른 연결어미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인식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의미가 기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문맥적 의미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빈번했다. 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가령 '따짐'의 의미가 시간적 관계, 논리적 관계 등의 대 부류에 일차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다른 연결어미 의미 속성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부여하자는 것이다.⁷⁾ 특히 최근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일정한 문맥을 공유하는 자료에서 새로운 연결어미의 의미 속성을 발굴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때 기본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세밀히 구별해 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위 범주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제안한다.

(2) 원칙 2: 임의적 선정을 지양하고 전체 의미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3. 역방향 점검법으로 점검한다

기존의 논의에서 제안된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은 의미-형식의 양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방향성만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지난날엔 활발하지 못하더니 지금은 꽤 활발해요.”와 같은 문장의 ‘-더니’의 의미를 ‘추가’로 기술한다면(송재영·한승규 2008: 183), 해당 문장에서 ‘추가’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7)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결어미 의미의 전체 분류 체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일단 연결어미 의미 체계를 고려하는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해 두고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의 과제로 삼는다.

‘추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용법의 ‘-더니’를 불러오기는 쉽지 않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추가’는 ‘순접’과도 구별되지 않는다. 최근 송재목(2011: 191)에서는 “차량 인도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아보니 노조파업 때문이라고 한다.”의 ‘-으니’의 의미를 ‘반응’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문맥에서 후행절이 선행절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한국어에서 ‘반응’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으니’를 호출해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임흥빈(1995/1998: 445)에서는 사전에서의 뜻풀이 검증의 도구로 ‘역방향 점검법’을 제안하였다. 역방향 점검법이란 뜻풀이를 역으로 적용하여 문제의 대상이 표제항의 지시 대상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가령 일반적인 한국어 사전에서 어휘 항목 ‘가시’의 뜻풀이는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밥을 먹다가 남겨둔 그릇에 생긴 구더기를 ‘가시’라고 하지는 않는다. 대개 ‘가시’라는 말은 된장이나 고추장에 생긴 구더기만을 가리킨다. 즉 가시가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인 것은 맞지만 음식물에 생긴 구더기가 모두 가시는 아니다. 뜻풀이가 지시하는 대상이 표제항의 지시대상보다 외연이 크므로, 이러한 뜻풀이는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방법을 연결어미 뜻풀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가령 연결어미의 뜻풀이로 ‘추가’를 제시하였을 때 ‘추가’의 연결어미로 지칭되는 지시대상이 해당 연결어미로 환원될 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제안한다.

- (3) 원칙 3: 선정된 메타언어는 역방향 점검법을 이용하여 해당 연결어미를 불러올 수 있는지 점검한다.

3. 연결어미 메타언어 선정을 위한 몇 문제

3.1. ‘양보’ 관련 메타언어

‘양보’는 기존의 논의에서 ‘뒤집힘, 방임, 불구속, 인정’ 등으로도 불리어 왔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양보’는 전통문법의 ‘concessives’를 번역한 것이다. 한국어에서 “내일 비가 와도 우리는 소풍을 간다.”와 같은 문장이 양보문이라고 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상언어의 ‘양보’는 ‘어떤 것을 사양하여 남에게 미루어 주는 것’을 뜻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좇는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양보의 내용이 없는 “내일 비가 와도 우리는 소풍을 간다.”와 같은 문장을 왜 양보문이라고 부르는지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환목(1999: 194)에서는 “‘시간, 장소, 이유’ 등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그들이 속한 문장의 ‘시간, 장소, 이유’ 등을 나타낸다는 것이 이들 부사절의 이름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양보절은 그것이 속한 문장의 양보를 나타낸다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⁸⁾

전통문법서의 기술에서 우리는 이러한 접속 관계를 나타낼 때 왜 ‘양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4) Although I dislike the man, I have not anything to say against him.

(4)는 Sweet (1891: 147)의 예이다. (4)를 양보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함”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자가 양보를 하기 때문이다. 즉 ‘양보’는 선행절 행위의 사실성을 임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로서⁹⁾ 선행절의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명명이라기보다는

8) 이환목(1999: 194~204)에서는 전통문법에서 사용되어 왔던 용어 중 번역이 잘못된 용어, 본래 의미와 관련 없이 번역된 용어,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용어를 정리하였다. 이 중 ‘양보절’은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용어에 속한다.

9) 국립국어원(2005: 144)에서 ‘-어도, -을지라도, -더라도’의 의미를 ‘인정(認定)’이

발화의 화행(speech act)과 관련한 명명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렇게 보면 ‘양보’는 사태에 대한 누군가의 믿음이나 판단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사태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나 판단이 일단 존재하여야 그것을 임시적으로 인정하든, 양보하든 하는 행위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양보문이 일상언어적 의미에서의 양보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5) 가. 비가 와도 소풍은 간다.

나. 하루에 세 시간쯤은 걸어도 힘들지 않아요.

다. 철수가 붙잡아도 영화는 떠났다.

라. 철수가 범인이라도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5가)의 선행절에 화자의 믿음이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화자는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비가 오는지의 여부를 모르는데도 잠시 자신의 뜻을 굽혀 즉 ‘양보’하여 ‘비가 와도’라는 발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날씨에 대한 믿음이나 판단 없이도 (5가)와 같은 문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후행절 역시 화자의 믿음이 포함된 주장이 아니다. (5나)의 선행절 역시 화자의 믿음이나 판단 혹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의 양보와는 거리가 멀다. (5다)는 사실성을 가지는 명제에 ‘-어도’가 사용된 예인데 역시 화자가 믿는 것에 대한 양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라)는 위의 (4)와 유사한 성격의 문장이나 화자가 반드시 “철수가 범인임”을 믿고 있다거나 혹은 믿지는 않지만 잠시 양보하여

라고 본 것은 이러한 점을 주목한 것이다.

10) 홍종화(1999: 561)에서는 수사학에서의 양보 개념이 “화자가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상대방의 논점을 일단은 그대로 수용해 줌으로써, 후에 문제의 본질에 접근했을 때 상대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담화의 기법”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적인 양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환목(1999: 202)에서도 “양보라는 말은 화자가 양보절에 담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에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백보 양보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그 대신 주절에 담긴 화자 자신의 주장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인정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 화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연결어미 ‘-어도’ 등이 표현하는 위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데 ‘양보’가 적절한 메타언어가 아니라면 대안은 무엇인가? 본고의 ‘원칙 2’에 의하면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양보가 연결어미 의미 체계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양보는 ‘기대 부정(denial of expectation)’의 의미 속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역접과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고(최현배 1937, 신지연 2003), 조건의 하위 범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장경희 1995, 박승운 2007). 전자의 견해도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의 경계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일단 후자의 논의에 찬동하여 양보를 조건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그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¹¹⁾ 만약 양보가 조건의 하위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면, 더구나 ‘양보’가 그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메타언어가 아니라면, ‘양보’에는 ‘조건’을 포함하는 이름이 붙어야 할 것이다.¹²⁾

장경희(1995: 166)에서는 양보가 조건의 하위 범주라고 주장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으면’이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연결어미이며, ‘-어도’는 예외적인 조건 관계를 나타내는 보다 좁은 의미의 연결어미라고 보았다. 이 논의에 의하면 ‘여기는 바람이 불면 덥다.’와 ‘여기는 바람이 불어도 덥다.’는 모두 두 사건 사이의 조건 관계를 나타낸다. 이

11) 다른 언어에 대한 논의에서도 조건과 양보의 공통점은 빈번히 지적되었다. 특히 영어에서는 ‘if’가 조건의 의미로도 양보의 의미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조건과 양보의 거리가 가깝게 파악되는 편이다. “Will you go hiking tomorrow if it rains?”와 같은 문장에서 ‘if’가 이끄는 절이 조건으로 해석되느냐 양보로 해석되느냐는 문맥에 의존하기 때문에 Sweetcher (1990: 137)은 조건과 양보의 차이를 화용론적인 것으로 본다.

12)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양보 접속사들은 대체로 형태적으로 합성적이다(König 2006: 821). 영어의 ‘although, even though’는 물론이고 한국어의 ‘-어도’ 역시 연결어미 ‘-어’와 보조사 ‘도’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양보가 원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것이 예외적인 조건임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후자이며 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전자이다. 박승운(2007: 69~70)의 견해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논의에서도 양보를 조건의 일종으로 보아 양보의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조건문이 존재하여야 하며 양보문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극단을 선택한 극단성 조건문(extremity conditional), 혹은 비최적성 조건문(non-optimal conditional)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인 조건’이나 ‘비최적성 조건’은 후행절 사태에 관여하는 ‘보편적인 조건’, ‘최적성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화·청자 사이에 공유되는 지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어서 양보 표현이 쓰인 모든 문맥에서 어느 경우에도나 상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장경희(1995)에서 든 ‘여기는 바람이 불어도 덥다.’나 박승운(2007)에서 든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는 자연 법칙이나 상식과 관련이 있는 명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선행절이 ‘보편적 조건’에 어긋나는 ‘예외적 조건’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이나 상식과 관련되지 않은 명제를 대상으로 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보편적 조건’과 ‘예외적 조건’을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6) 가. 영수가 오면 영화가 간다.

나. 영수가 와도 영화가 간다.

(6가)에서 영수가 오는 것은 영화가 가는 ‘보편적 조건’이고 (6나)에서 영수가 오는 것은 영화가 가는 ‘예외적 조건’이라고 선협적으로 말할 수 없다. 모든 상황에서 화·청자 사이에 ‘보편적 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양보는 ‘기대 부정’ 혹은 ‘기존 조건 관계의 부정’이라는 의미로 파악되었으나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7) 가. 비가 오면 소풍을 안 간다.

나.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

(7나)와 같은 양보문은 (7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조건문을 부정하는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이 기존의 인식이다. 즉 (7나)의 선행절의 내용에서 소풍을 안 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후행절에서 부정된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7나)의 ‘비가 와도’에서 ‘소풍을 안 간다’라는 기대가 산출된다는 것은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라는 전체 문장이 생성된 후의 결과일 뿐이다. ‘비가 와도’라는 발화가 산출하는 기대는 문맥 독립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양보문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함축(implicature)으로 설명된다(König 1986: 233, 박승윤 2007: 73). “영수가 와도 영화가 간다.”라는 문장을 발화할 때 화·청자가 모두 ‘영수가 오면 영화가 안 간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그에 대해 배경 지식이 없던 청자라도 ‘영수가 오면 (일반적으로는) 영화가 안 간다’는 추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가 와도 소풍을 간다.”의 경우에도 기존 조건 관계의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문장이 ‘비가 오면 일반적으로 소풍을 안 간다’는 조건문 형식의 함축을 생성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¹⁴⁾

13) 유혜령(1998: 359)에서는 ‘양보’를 “접속된 두 절에 있어서, 후행절이 선행절의 전제되는 기대의 부정을 수용하는 의미관계”라고 하였다. Harris (1988: 71)는 원인절은 종속절과 주절 사이의 인과 연쇄가 단언되는 것이고 조건절은 인과 연쇄가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초로 제안되는 것이며 양보절은 인과 연쇄가 부정되는 것으로 의미론적 스펙트럼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과 연쇄가 부정되는 것이 양보라는 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논리학적으로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p이고 ~q이다’이지 ‘p이면 ~q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 관계의 부정이라는 말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14) König (1986: 233)에서는 양보가 가지는 함축을 ‘even though p, q implies if p, then normally ~q’와 같이 표현하였다. 홍종화(1999: 566)에서 지적인 ‘배경 지식의 강요’ 현상 역시 양보문의 함축 생성 기능을 말한다. 이 논의에서는 청자가 선행절적으로 그와 같은 양보 구문의 전체적 추론관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자는 양보구문의 발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화자로부터 그와 같은 전체적 추론관계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받게 된다고 하였다. 화청자의 지식에 상관없이 양보문

박승윤(2007: 73)에서는 ‘양보’가 항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것을 양보가 조건의 하위 범주라는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양보문이 조건문 형식의 함축을 가진다고 해서 양보가 곧 조건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문장이 항상 부정문 형식의 함축을 가진다고 해서(가령 “영희는 밥만 먹는다.”라는 문장은 ‘다른 것은 먹지 않는다’는 함축을 가진다.) 그 문장이 곧 부정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조건과 양보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본고는 양보가 ‘비관여적 조건(uninfluential condi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논리학에서 조건은 p 가 참인 경우 q 도 참임을 주장하고 p 가 참인데도 q 가 거짓인 경우를 배제하는 두 명제 사이의 관계이다. 즉 조건은 p 와 q 가 모두 참, p 는 거짓이고 q 가 참, p 가 거짓이고 q 도 거짓인 두 명제 사이의 관계로서 p 가 참인데도 q 가 거짓인 경우만을 배제한다[Comrie 1986: 78, Copi 1972(민찬홍 역 1988: 358)]. 이를 자연 언어에 적용하면 “영수가 오면 영화가 간다.”는 ‘영수가 오고 영화가 감’을 주장하고 ‘영수가 오지 않고 영화가 감’, ‘영수가 오지 않고 영화가 가지 않음’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영수가 오고 영화가 가지 않음’을 배제한다. 그런데 이에 입각하면 양보문 “영수가 와도 영화가 간다.”의 의미 역시 조건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인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영수가 오다’가 참인 경우 ‘영희가 가다’가 참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장의 의미는 ‘영수가 오지 않고 영화가 감($\sim p$ 이고 q)’, ‘영수가 오지 않고 영화가 가지 않음($\sim p$ 이고 $\sim q$)’을 포함하고 ‘영수가 오고 영화가 가지 않음(p 이고 $\sim q$)’의 경우를 배제하는 점도 조건과 같다.¹⁵⁾

논리학적으로 조건은 두 명제 내용의 실현에 대한 상관관계만을 따

이 조건문 형식의 함축을 생성하며 많은 경우 이 조건문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태를 표현한다고 보면 이러한 배경 지식의 강요 현상도 쉽게 설명된다.

15) 양보 관계가 ‘ $\sim p$ 이고 $\sim q$ ’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는 바람이 불어도 덥다.”는 ‘여기는 바람이 불고 덥지 않다’는 배제하지만 ‘여기는 바람이 불지 않고 덥지 않다’를 적극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 듯하다.

질 뿐 두 명제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즉 선행절 명제가 표현하는 조건이 모두 후행절 사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영수가 오면 영화가 간다.”라는 문장은 일반적으로는 두 사건이 관계가 있고 영수가 온 것이 영화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¹⁶⁾ 그러나 이는 자연 언어 사용의 일반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함축일 뿐, 영수가 오는 것이 영화가 가는 것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영화가 영수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이 문장은 참이다.¹⁷⁾ 후행절 사태의 발생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질을 ‘관여성’이라고 하면 ‘조건’에는 ‘관여적인 조건’과 ‘비관여적인 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⁸⁾

이를 염두에 두면 양보의 ‘-어도’가 표현하는 것은 조건의 특수한 경우인 ‘비관여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영수가 와도 영화가 간다.”는 앞에서 말했듯이 영수가 오는 상황이 실현된 경우 영화가 가는 것을 주장하므로 조건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관여적 조건의 영역을 배제한다. 즉 이 문장이 주장하는 것은 영수가 오는 것에 상관없이 영화가 간다는 것, 즉 영수가 오는 것이 비관여적 조건이라는 점이다.¹⁹⁾

16) 나아가 “영수가 오면 영화가 간다.”는 많은 경우 ‘영수가 와서 영화가 간다’로 해석된다. 이는 조건문이 가지는 인과 함축(causal implication)이다(Saeed 1997/2009: 93).

17) 순수한 논리학적 측면에서는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이면 2는 짝수이다.”와 같이 전혀 관련이 없는 두 명제가 사용된 조건문도 참이다(Comrie 1986: 80). 물론 자연 언어에서는 최소한의 관련성이 있는 명제들이 조건문을 이룬다.

18) 심사위원 중 한 분은 ‘비관여적 조건’이 어떻게 ‘조건’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한국어의 ‘-으면’이 표현하는 함축, 즉 선행절 사태의 발생이 후행절 사태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조건의 의미의 일부로 이해하여 ‘관여적 조건’만을 ‘조건’으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조건’을 선행절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후행절 사태가 발생할 때 선행절이 가지는 속성으로 넓게 이해하였으므로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비관여적 조건 역시 조건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즉 ‘영수가 와도 영화가 간다’는 ‘영수가 오면 영화가 간다’와 마찬가지로 선행 명제가 참인 경우 후행 명제가 참임을 말하므로 조건의 범주에 속한다.

19) 이와 관련하여 ‘관여성’을 ‘인과성’ 및 ‘관련성’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관여성은 인과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가령 “술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양보가 가지는 비관여성의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König (1986: 231, 2006: 822)의 논의를 검토해 보자. 이 논의에서는 조건과 양보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보적 조건(concessive conditionals)’의 범주를 제안하였다. 양보적 조건은 영어의 ‘Whether he is right or not, we must support him.’과 같은 문장을 위해 마련된 범주이다.²⁰⁾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으로 양보문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일반적인 양보문과 달리 선행절을 함의(entail)²¹⁾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²²⁾ 이와 같은 문장의 의미는 ‘If p, then q and if $\sim p$ then q’로 형식화되는데 결국 이는 두 개의 이상의 일련의 선행 조건들과 결과절을 연관시킨 조건절이다(König 2006: 822). 양보적 조건이 드러내는 ‘If p, then q and if $\sim p$ then q’의 의미는 p의 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q가 실현됨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p가 비관여적 조건임을 말한다.

König은 양보절이 ‘even though’가 이끄는 절과 같이 사실성을 가지는 명제라는 점을 고수하려 했기에 양보와 유사한 뜻을 가지면서도 사실성을 가지지 않는 문장을 양보적 조건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그의 논

다”는 ‘술을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를 함축하지만 ‘술을 먹으면 안주로 고기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문맥에서는 이 함축이 취소된다. 이때 취소되는 것은 인과 함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술을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된다’에 관여하는 조건이다. ‘술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는 술을 먹는 일이 소화가 안 되는 일의 원인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술을 먹는 일이 소화가 안 되는 사태의 발생 여부에 전혀 관여하지 못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 영역은 논리적으로는 조건 의미에 포함되지만 자연 언어 “술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로는 충분히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술을 먹는 일과 소화가 안 되는 일 사이에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성은 인과성보다는 넓고 관련성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20) 이와 함께 “No matter how much help he gets, he will never complete his work at time.”, “Even if he gets a lot of help, he will never complete his work at time.”과 같은 유형의 문장도 양보적 조건의 범주에 넣는다.

21) König은 일련의 논의에서 ‘함의하다(entail)’를 명제가 표상하는 사태를 사실적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쓴다. 서경섭(1991)에서는 이를 ‘단언하다’로 의역하여 사용한다.

22) 이와 같은 문장은 윤평현(2005: 169)에서는 ‘선택적 양보절’이라고 하였다.

의에서 선행행절의 사실성은 조건, 양보적 조건, 양보를 구별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조건은 선행행절을 모두 함의하지 않고 양보는 선행행절을 모두 함의하는데 양보적 조건은 후행절만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König 1986: 234). 이 기준에 의하면 “Even if you drink (only) a little, your boss will fire you.”와 같은 문장은 선행절이 사실성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와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양보적 조건에 속한다.²³⁾

König의 논의를 충실히 받아들여 한국어에서도 양보가 사실성 명제를 취해야 한다는 가정을 유지하려면 연결어미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 등의 의미는 모두 양보적 조건에 해당한다. 임동훈(2009: 107)이 이러한 관점을 취했는데 이 논의에서는 König & van der Auwera (1988)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지만’은 선행절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양보에 가깝고, ‘-더라도’는 선행절을 함의하지 않으므로 양보적 조건,²⁴⁾ ‘-어도’는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한국어에서 양보와 양보적 조건을 구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역접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지만’을 제외하면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 등은 사실성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⁵⁾ 관점에 따라서 ‘-어도’의

23) König & van der Auwera (1988: 107)에서는 양보적 조건과 양보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진다고 하였다. 첫째, 양보적 조건은 결과절과 모든 선행절 조건의 집합 사이의 조건적 관련성을 주장하고 그것이 모든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소진하기 때문에 선행절 조건은 종종 후행절에 무관하고(irrelevant) 양보처럼 후행절을 함의한다. 둘째, 양보적 조건과 양보는 공통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정상적인 비합치성(normal incompatibility) 혹은 불일치(dissonance) 관계를 가진다.

24) 임동훈(2009: 107)에는 ‘조건적 양보’라고 되어 있으나 ‘양보적 조건’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25) ‘-어도’는 사실적 명제와 비사실적 명제를 모두 취할 수 있다. ‘-더라도’는 비사실적 상황에 주로 쓰이는 것이 많이 논의되긴 했지만(이은경 1990: 77), 사실 명제에 쓰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서경수 1994: 1152). 필자는 사실성과 관련한 자질이 조건이나 양보의 의미론에 본질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양보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선행절의 사실성을 임시로 인정하는 행위’와 관련 있기 때문에 König이 일련의 논의에서 진정한 양보로 본 ‘사실적 양보(factual concessives)’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실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의미를 양보에 넣든 양보적 조건에 넣든 ‘-어도’의 의미의 본질은 소위 ‘양보적 조건’의 ‘비관여성’에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어도’의 비관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도 해명된다. ‘-어도’의 양보 의미는 역동(亦同)의 보조사 ‘도’의 의미에 기반하여 출발했다고 생각되는데²⁶⁾ 그 기원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문맥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8) [영수, 철수, 인수 셋 중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올 경우 영화가 가는 상황]
가. 영수가 오면 영화가 간다.
나. 영수가 와도 영화가 간다.

위 상황에서 (8가, 나) 두 문장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으면’과 ‘-어도’는 모두 영수가 오는 사태가 실현된 경우 영화가 가는 사태가 실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8나)가 부가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영수가 오는 것 역시 영화가 가는 것을 실현하는 조건 중의 하나라는 뜻인데 이는 물론 보조사 ‘도’의 ‘역동’의 용법의 발현이다.

그러나 ‘-어도’는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며 이때 ‘-어도’의 ‘도’는 단순히 역동의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고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 (9) [영화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고 우기고 심지어 자기가 제일 좋아하
는 영수가 오는데도 가겠다고 우기는 상황]
가. 영수가 오면 영화가 간다.
나. 영수가 와도 영화가 간다.

26) 양보에 관여하는 형식 중에는 조건이나 시간 접속사와 부가적 초점(additive focus)의 첨사가 결합된 것이 흔히 발견된다. 한국어에서 보조사 ‘도’가 양보 연결어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영어의 ‘even though’, 불어의 ‘quand même’, 독어의 ‘wenn-gleich’, Bengali 어의 jodi-o(if-also) 등에서 양보 표현에 부가적 초점 첨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König 2006: 821-822 참조).

(9나)의 ‘-어도’의 의미는 단순히 영수가 오는 것 역시 영화가 가는 조건 중의 하나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때의 ‘-어도’는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의 발생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영수가 오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영화가 가는 사태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만(그래서 많은 경우 영화가 가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영수가 오는 일이 영화가 가는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관여적 조건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으면’이 사용된 (9가)는 진리조건적으로 거짓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므로 쓰이지 않는다.

(8)과 (9)의 ‘-어도’의 차이는 다음의 보조사 ‘도’의 차이와 동격의 것이다.

(10) 가. 영화는 (밥, 반찬 외에) 국도 먹는다.

나. 영화는 돌도 먹는다.

(10가)의 ‘도’는 단순한 역동을 나타낸다. 그러나 ‘도’는 (10나)와 같이 극단적 항목을 취하면 ‘조차’의 의미로 확장된다. 그리고 돌조차 먹는다는 것은 먹는 대상에 상관없이 다 먹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쉽다. (9)의 ‘-어도’ 역시 ‘도’의 의미 확장과 함께 ‘~의 경우에조차’라는 의미가 붙게 되었고 이는 ‘~하는 것에 상관없이’라는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즉 “영수가 와도 영화가 간다.”의 양보, 즉 비관여적 조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11) 영수가 오는 것 역시 영화가 가는 것의 조건 중의 하나이다.

→ 영수가 오는 것조차도 영화가 가는 것의 조건이다.

→ 영수가 오는 사태의 발생 여부가 영화가 가는 사태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컨대 양보는 조건의 일종이고 조건 중에서도 후행절 사태에 관여

하지 않는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 영역이므로 ‘-어도’ 관련 양보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술하는 메타언어는 ‘비관여적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때 선행절은 대개는 후행절 사태의 발생 여부에 관여한다고 가정되는 내용이 오기 때문에 ‘화용론적 맥락에서 존재하는 기대의 부정’과 관련한 함축을 생산하기 쉽다.

3.2. ‘설명, 상황, 배경’ 관련 메타언어

‘설명, 상황, 배경’ 등은 연결어미 ‘-은데, -으니, 으되’ 등의 기술에 사용된 메타언어이다. 연결어미 기술에 ‘설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주시경(1910: 84)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에서는 ‘-은데, -으니’의 기술에 “이미 말한 것을 다시 풀어 말하는 것”이라 하여 ‘풀이’라는 메타언어를 사용하였다. 최현배(1937/1955: 313) 역시 이를 이어받아 ‘-는데, -으되, -으니, -더니’ 등의 연결어미를 ‘풀이꼴(설명형)’에 묶어 기술하였다. 풀이꼴은 “그 뒤에 다시 그 일을 더 풀이하는 말이 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기술에 따르면 ‘설명’은 선행절이 아니라 후행절의 속성과 관련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즉 “비가 오는데 많이 온다.”와 같은 문장에서 선행절 내용을 더 자세히 풀이한 것이 후행절이라는 의미이다.

이후 ‘설명’은 최재희(1990: 186), 이은경(1990: 89) 등의 논의에서도 사용되었다. 이 논의들에서 사용된 ‘설명’의 용법은 최현배(1937)과는 약간 다르다. 이 논의에서는 ‘설명’의 연결어미가 사용된 선행절은 후행절의 시간적 배경이나 상황적 배경을 설명하거나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설명’이라는 용어는 그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선행절의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고 후행절의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었다. ‘설명’을 후행절의 특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고의 ‘원칙 1’에 부합하지 않기도 하지만 ‘설명’ 자체가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 적합한 개념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은 ‘진술, 평서’ 등과 유사한 의미로서, ‘의문’, ‘명령’ 등 발화의 목적이나 문장 유형의 하위 부류로 사용되어야 할 개념이기 때문이다. 선행절의 특성에

‘설명’을 사용한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본다. “산책하고 있는데 비가 왔다.”와 같은 문장에서 선행절이 시간적 혹은 상황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때 ‘-는데’의 의미를 지적하는 메타언어는 ‘설명’이 아닌 ‘배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설명’이라고 한다면 “비가 와서 땅이 질다”에서의 ‘-어서’ 역시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황’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상황’은 윤평현(1989, 2005), 서정수(1994) 등의 용어이다. 서정수(1994: 1075)에서는 ‘-은데’를 상황 접속소라고 하면서 “앞 절에 첨가되는 접속소로서 뒤 절에서 설명이나 주장 따위를 내세울 수 있도록 적절한 문맥적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상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상황’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는다. 엄밀히 말해 모든 명제 내용이 표상하는 바가 상황(situation)이기 때문이다.²⁷⁾

‘-은데’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배경(background)’이라는 메타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²⁸⁾ 이은경(2000: 263)에서는 ‘배경’을 후행절 사태를 기술하기 위한 적절한 배경을 선행절에 도입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때의 ‘배경’은 언어학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배경’은 ‘전경’ 혹은 ‘초점’에 대비되는 개념이므로 ‘-은데’의 기능이 발화의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김영희(1987: 64)에서는 ‘-은데’를 ‘화제/주제 제시’의 형태로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보 구조론에서의 ‘배경-초점’ 혹은 ‘화제-논평’은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바탕으로 한 정보 포장(information package)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즉 청자가

27) 또한 ‘설명’과 ‘상황’은 본고의 ‘원칙 3’, 즉 역방향 점검법에 의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 한국어에서 ‘설명’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상황’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은데’를 불러올 확률은 낮다.

28) 필자는 연결어미 의미 체계의 대 부류에 ‘시간, 논리’ 등과 더불어 정보의 성격과 관련한 부류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알고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정보와 청자가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는 정보를 부호화하는 언어적인 장치와 관련된다(Chafe 1976, Lambrecht 1994, 박철우 2003). 그러나 ‘-은데’가 이끄는 선행절이 반드시 정보구조론에서의 ‘화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즉 화자가 ‘-은데’ 절의 내용을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 (12) 가. 어제 소설책을 한 권 샀는데, 아주 재미있더라.
나. 시장에 가긴 했는데 싱싱한 과일이 없었어.

(12가)에서 화자는 ‘어제 소설책을 샀다’는 사실을 청자에게 처음 알려 주는 것이라도 ‘-은데’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12나)에서 ‘시장을 가긴 했다’는 정보 역시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지 않는다.

‘-은데’가 가지는 ‘배경’의 기능은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과는 약간 다른 의미에서 화자가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후행절 내용임을 의미한다. 인지적 관점에서 정보적으로 도드라지는 것과 도드라지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면 ‘-은데’는 도드라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담화화용론에서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개념인 형상(figure)과 바탕(ground)의 구별에 입각하여 전경 정보(foreground information)와 배경 정보(background information)를 구별하는데 배경 정보는 의사소통 부담량(communicative dynamism)이 낮은 정보로서 이야기의 진전에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이고 전경 정보는 이야기의 주요 사건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부담량이 높은 정보이다(Wallace 1982: 208, 정희자 2002: 30-33).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의 ‘-은데’는 배경 정보를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이다. 위의 (12가, 나)에서 화자가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설책을 산 것’, ‘시장에 간 것’이 아니라 ‘소설책이 재미있다’, ‘싱싱한 과일이 없다’이다. 선행절의 내용은 후행절의 내용을 도입하기 위한 바탕 역할만을 할 뿐이다.

이은경(2000: 264)에서는 ‘-은데’에 의해 연결되는 두 사태는 특정한

의미론적 관계에 의해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은데’의 기능은 통사·의미론적 기능이라기보다는 담화적 기능에 가깝기에 두 절 사이의 연결이 느슨한 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은데’ 등이 표현하는 의미는 ‘배경’으로 기술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3.3. ‘발견, 지각’ 관련 메타언어

다음으로 ‘발견’과 ‘지각’의 문제를 살펴본다. ‘발견’은 남기심·루코프(1983)에서 ‘-으니까’의 기술에 사용된 용어이다. “내가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 있었어.”와 같은 문장의 ‘-으니까’가 선행절 상황에서 후행절 사태를 발견하는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이다.²⁹⁾ 이현희(1994: 2장), 한동완(1996: 140)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법을 보이는 ‘-으니’에 대하여 ‘발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으니’의 기능에 대하여 서정수(1994: 1198)에서는 ‘지각 상황 설정’, 윤평현(2005: 261)에서는 ‘지각’이라고 하였고 장광군(1999: 191, 250), 송재목(2011)에서는 ‘인지’라고 하였는데 모두 같은 맥락이다.

이 중 언어학 논의에서 흔히 사용되는 ‘지각(perception)’은 증거(evidentiality) 범주와 관련된 속성이다. 실제로 임채훈(2008: 222)에서는 이때의 ‘-으니’가 감각적 경험에 의한 증거 범주를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으니(까)’ 등이 표현하는 의미는 증거 범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한국어 문법 형식 ‘-더-, -구나, -네’ 등이 표현하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박재연 2009: 126). ‘-더-, -구나, -네’ 등의 표현하는 ‘지각’의 의미는 ‘-더-’나 ‘-네’에 선행하는 명제가 표상하는 사태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가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 있었어.”

29) 한편 최상진·임채훈(2008)에서도 ‘발견’이라는 용어를 ‘-으니까’와 관련하여 사용하는데 이때의 ‘발견’은 남기심·루코프(1983)에서의 용법과는 전혀 다르다. 이 논의에서는 ‘-으니까, -으면, -어서’의 의미를 인과관계의 인지적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비교하였는데 ‘-으니까’는 인과관계의 발견, ‘-으면’은 인과관계의 정립, ‘-어서’는 인과관계의 적용을 표현하는 어미라고 보았다.

에서 ‘-으니까’가 표현하는 지각은 선행절 사태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후행절 사태에 대한 지각이다. 이를 ‘지각’으로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는 있다고 본다.

더구나 본고의 ‘원칙 1’에 의하면 ‘발견, 지각, 인지’는 후행절을 대상으로 한 행위를 표현하므로 종속적 연결어미의 메타언어로서 적절치 않다. ‘원칙 3’과 관련하여 ‘지각’을 나타내는 한국어 어미로 과연 ‘-으니’를 불러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용법을 기술하는 적절한 메타언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으니’를 포함하는 어미가 어떻게 이러한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되는지와 관련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Sweetcher (1990: 4장), Comrie (1986: 81)에서는 영어 접속사의 의미가 내용 영역(content domain), 인식 영역(epistemic domain), 화행 영역(speech act domain)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because’는 다음의 세 영역에서 ‘이유’를 표현한다.

- (13) 가. John came back because he loved her.
 나. John loved her, because he came back.
 다. What are you doing tonight, because there is a good movie on?(이상 Sweetcher 1990: 77)

(13가)는 내용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이유를 표현한다. 반면 (13나)의 이유는 인식론적 차원의 것이다. ‘그가 돌아온 것’이 ‘존이 그녀를 사랑함’의 이유가 아니라 ‘존이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화자가 알게 된’ 이유이다. (13다)는 화행 영역에서의 이유를 표현한다. ‘좋은 영화가 상영 중’인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이다.

임은하(2002: 16), Cui (2011: 28)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어 연결어미에서도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

- (14) 가. 휴즈가 끊어지니까 전기가 나갔다.

나. 오늘 일요일이니까 가게 쉬는 날이겠네.

다. 열쇠 있는 델 아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 주세요(이상 임은하 2002: 16).

(15) 가.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든다.

나. 자세히 뜯어보면 결코 잘 생긴 얼굴도 아니고 특징을 지닌 얼굴도 아니다.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들의 생명의 불꽃은 생애의 본능에만 맡겨진 것이 아니다(이상 이희자·이종희 1999: 317).

(16) 가. 부처가 신이 아니고 인간일진대 그렇게 태연자약한 얼굴로 요저부동 침묵만 할 수 있을까?

나. 영감의 인상으로 볼진대 분명 명이 길 사람이었다.

다. 예를 들진대 다음과 같다(이상 이희자·이종희 1999: 223).

(14)는 이유 연결어미 ‘-으니까’의 예이다. (14가)에서 ‘-으니까’는 내용 영역에서의 이유를 표현한다.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의 이유이다. 반면 (14나)에서 선행절 사태는 후행절 사태의 이유라기보다는 화자가 후행절과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나타낸다. (14다)의 선행절은 화자가 후행절 발화를 하게 된 이유이다. (15)는 조건 연결어미 ‘-으면’의 예이다. Cui (2011: 28)에서는 (15가)의 ‘-으면’은 내용 영역의 일반적인 조건이지만 (15나)의 ‘-으면’은 후행절 사태를 인식하게 된 조건이고 (15다)의 ‘-으면’은 후행절 발화를 하게 된 조건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희자·이종희(1999: 223)에서는 (16가)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이 다음 사실의 가정적인 조건임을 나타냄”, (16나)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냄”, (16다)는 “설명적인 조건을 나타냄”이라고 뜻풀이되어 있는데 본고의 관점에서 이는 차례로 내용 영역, 인식 영역, 화행 영역에서의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연결어미의 의미가 내용 영역에서 인식 영역, 화행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³⁰⁾ 이러한 점을

30) 김영희(2005: 45 각주 4)에서는 “너도 알고 있지만 그가 그렇게 몰염치한 사람 아니다.”, “언젠가 말했지만 나는 그런 일이 싫다.”의 예에서 ‘-지만’이 ‘제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제시’ 역시 많은 모호성을 가지는 메타언어이

주목하면 ‘발견’의 ‘-으니(까), -었더니’에서 보이는 현상 역시 ‘-으니’의 ‘이유’의 의미가 인식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17) 가. 집에 가니 아이들이 많이 와 있었다.

나.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지금까지 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구나.

다. 이 길이 좋을 것 같아서 이리로 왔더니 길이 더 나쁘구나(장광균 1999: 191).

(17가)는 집에 간 것이 아이들이 많이 온 이유라는 뜻이 아니라 집에 간 것이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화자가 인식하게 된 이유라는 뜻이다. (17나)에서도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의 이유는 아니지만 생각해 본 것이 ‘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음’을 인식하게 된 이유이다. (17다) 역시 이리로 온 것은 길이 더 나쁜 이유가 아니라 길이 더 나쁜 것을 인식하게 된 이유이다.³¹⁾

실제로 ‘-으니까’의 일반적인 ‘이유’ 용법과 ‘발견’ 용법은 그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문맥에 따라 그 해석이 후행절의 상 표현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아예 중의성을 가지기도 한다.

다. 이때의 ‘-지만’은 화행 영역에서의 역접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명제 차원에서 ‘너도 알고 있다’와 ‘그가 그렇게 몰염치한 사람은 아니다’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미 알고 있음에도 후행절 발화를 하는 것이 대립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 31) 앞에서 언급했듯이 송재목(2011)에서는 “행인에게 물어보니 오래 전에 이전했다고 한다.”와 같은 문장의 ‘-으니’의 의미를 ‘반응’이라고 하였다. ‘반응’은 후행절의 행위는 선행절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발견’(이 논의의 용어로는 ‘인지’)과 다르다고 하였다(송재목 2011: 192, 각주 8).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 ‘발견’은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많다.”와 같이 선행절 행위 이전에 존재했던 상황뿐 아니라 “학교에 갔더니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와 같이 선행절 행위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도 쓰인다. ‘반응’에 해당하는 예는 대개 후행절에 인용문이 오는 경우이고 ‘반응’ 자체가 후행절 주어의 행동(특히 발화)을 전제하는 메타언어여서 이는 문맥적 의미에 해당하지 않으나 한다.

- (18) 가. 내가 집에 가니까 동생이 울었다.
 나. 내가 집에 가니까 동생이 울고 있었다.
 (19) 선물을 사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기뻐하셨다.

(18가)의 ‘-으니까’는 내용 영역의 이유로 해석된다. 화자가 집에 간 것이 동생이 온 이유이다. (18나)의 ‘-으니까’는 인식 영역의 이유로 해석된다. 화자가 집에 가서 동생이 온 것이 아니라 화자가 집에 간 것이 동생이 울고 있는 것을 인식한 이유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후행절에 완결과 관련한 함축을 나타내는 ‘-었-’이 사용되었느냐, 미완결 표현인 ‘-고 있-’이 사용되었느냐에 따른다. 한편 (19)는 중의성을 가진다. 선행절 사태가 후행절 사태의 내용 영역에서의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인식 영역에서의 이유, 즉 선물을 사 드리는 것이 계기가 되어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을 인식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내용 영역에서 인식 영역으로의 확장을 가능케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기존의 논의에서 ‘발견, 지각, 인지’ 등으로 기술되어 온 ‘-으니까’ 등의 용법은 이들의 ‘이유’ 의미가 인식 영역으로 확장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³²⁾ 이를 ‘인식 영역의 이유’라는 메타언어로 기술함으로써 일반적인 내용 영역의 이유와 소위 ‘발견’ 용법이 가지는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된다.

4. 결론

본고는 한국어 연결어미의 의미 기술에 사용하는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제안하고 ‘양보, 설명, 발견’ 등의 의미 속성과 관련하여 메타언어를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본고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의 메타

32) 기존의 논의에서 소위 ‘발견’의 의미로 기술된 예문들의 선행절에는 ‘가다, 오다’ 등 이동 동사나 ‘생각하다’ 등의 사유 동사, ‘물어보다’ 등의 발화동사 등이 자주 쓰이는데 이들은 인식의 계기, 혹은 방법과 관련이 있다.

언어는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 임의적 선정을 지양하고 체계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 역방향 점검법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언어 선정에서 문제가 되어 온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첫째, '-어도' 등이 표현하는 '양보'는 조건의 일종으로서 후행절 사태 실현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을 나타내는 '비관여적 조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은데' 등에 대해서 부여되었던 '상황, 설명'보다는 '배경'이 나은 메타언어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으니(까)'의 일부 용법은 '발견, 지각' 등의 용어로 기술되었으나 이는 '이유' 중 '인식 영역에서의 이유'로써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술적 혹은 응용적 관점에서 연결어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결어미 의미의 세부적인 국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그만큼 임의적으로 메타언어를 선정할 위험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본고의 논의가 미흡하나마 체계적인 메타언어 선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본고에서 제안한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은 아직은 시안 단계이며 많은 절정을 통해 다듬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는 연결어미 의미의 대 분류 체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이유' 연결어미의 하위 부류 문제와 상·양태 관련 연결어미의 의미를 기술하는 메타언어 문제, 나아가 한국어 사전에서 연결어미의 뜻풀이 모형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연구의 목표로 삼았으나 분량이 넘쳐 논문에 포함하지 못하였다.³³⁾ 이러한 연구는 사전 편찬 및 외국어로서의 한

33) 연결어미 의미 기술의 문제는 한국어 사전에서의 연결어미 뜻풀이에서도 드러나 있다. 다음은 '조건' 연결어미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의 일부이다.

(가) '-으면':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나) '-어야':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다) '-거든':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가)~(다)에서 보인 '-으면, -어야, -거든'은 모두 '조건'의 의미를 표현하는 연

국어 교육 등 응용적 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희(1987), 국어의 접속문, 《국어생활》 11, 국어연구소.
- 김영희(2005), 《한국어 통사 현상의 의의》, 역락.
- 김진수(1987), 《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루코프(1983/1996), 논리적 형식으로서의 '-니까'와 '-어서' 구문, 《국어문법의 탐구 1》, 태학사.
- 박승윤(2007), 양보와 조건, 《담화와 인지》 14: 1, 담화와 인지학회, 63-83.
- 박재연(2009), 연결어미와 양태: 이유, 조건, 양보의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의미학회, 119-141.
-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수(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송재목(2011), '-으니'와 '-더니', '-었더니'의 의미기능: 접속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4, 185-212.
- 송재영·한승규(2008), 연결어미 '-더니' 연구, 《국어학》 53, 국어학회, 177-198.
- 신지연(2004), 대립과 양보 접속어미의 범주화, 《어문학》 84, 한국어문학회, 75-98.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한글학회, 77-104.
- 유혜령(1998), 접속어미 '-지만, -으나, -어도'에 대한 연구, 《국어문법의 탐구 IV》, 태학사, 339-373.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신문화사.

결어미나 위 기술에서 이들 연결어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기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에서 '-으면'의 뜻풀이는 일상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나 (나)의 '-어야'의 뜻풀이에는 '조건'이라는 문법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에서 '-거든'의 '조건'의 의미는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실제로 실현되면'과 같이 다시 쓰기(paraphrase) 방식으로 풀이되어 있다. 사전 집필에서 문법 형식 뜻풀이의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이은경(1990),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국어연구》 97, 국어연구회.
- 이은경(2000),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태학사.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환목(1999), 《영어전통문법론》, 아르케.
- 이희자·이중희(1999),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한국문화사.
-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 56, 국어학회, 87-130.
- 임은하(2002), 현대국어의 인과관계 접속어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채훈(2008), '감각적 증거' 양태성과 한국어 어미 교육: '-네, -더라, -더니, -길래' 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7, 이중언어학회, 199-234.
- 임홍빈(1995), 규범성과 충실성의 문제: '종합국어대사전' 편찬에 바란다, 《새국어생활》 5: 1.[임홍빈(1998)에 실림, 441-453.]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III: 어휘범주의 통사와 의미》, 태학사.
- 장광근(1999), 《한국어 연결어미의 표현론》, 월인.
- 장경희(1995), 국어 접속어미의 의미 구조, 《한글》 227, 한글학회, 151-174.
- 정희자(2002), 《담화와 추론》, 한국문화사.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고영근·이현희 역주(1986), 《주시경 국어문법》, 탑출판사.]
- 최상진·임채훈(2008), 인과관계 형성의 인지과정과 연결어미의 상관성: '-어서, -니까, -면' 등을 중심으로 《국어학》 52, 국어학회, 127-152.
- 최상진·임채훈(2009), 부연의 연결어미 '-지'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학》 42, 한국어학회, 291-316.
- 최재희(1990),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 최현배(1937/1955),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국어학총서 24, 태학사.
- 홍종화(1999), 양보구문의 해석, 《불어불문학연구》 38, 한국불어불문학회, 561-576.
- Brown, K. et al. (eds.) (2006),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Elsevier.
-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 and Topic and Point of View, in Li, C. N. (ed.)(1976), 25-55.
- Comrie, B. (1986), Conditionals: A Typology, in Traugott, E. et al.(eds.) (1986), 77-99.
- Copi, I. M. (1972), *Introduction to Logic*, The Macmillan.[민찬홍 역(1988), 논리

학 입문, 이론과 실천]

- Cui Chao (2011), 조건 연결어미의 의미에 대한 연구: ‘-으면, -거든, -아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aiman, J. & S. A. Thomson (eds.) (1988), *Clause Combining in Grammar and Discourse*, John Benjamins.
- Harris, M. (1988), Concessive Clauses in English and Romance, in Haiman, J. & S. A. Thomson (eds.) (1988), 71-99.
- Hopper, P. (ed.) (1982), *Tense and Aspect: between Semantics and Pragma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aufmann, S. (2006) Conditionals, in Brown, K. et al. (eds.) (2006), 6-9.
- König, E. (1986),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Area of Contrast, Overlap and Neutralization, in Traugott, E. et al. (eds.) (1986), 229-246.
- König, E. (2006), Concessive Clauses, in Brown, K. et al. (eds.) (2006), 820-824.
- König, E. & J. van der Auwera (1988), Clause Integration in German and Dutch Conditionals, Concessive Conditionals, and Concessives, in Haiman, J. & S. A. Thomson (eds.) (1988), 101-133.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al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C. N. (ed)(1976),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 Saeed, J. I. (1997/2009), *Semantics*(3rd edition), Wiley-Blackwell.
- Sweet, H. (1894), *New English Grammar: Logical and Historical Part 1*, Oxford.
- Sweetch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 et al. (eds) (1986), *On Condition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lace, S. (1982), Figure and Ground: the Interrelationships of Linguistic Categories, in Hopper (ed.) (1982), 201-223.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전화: 031-219-2806

E-mail: peace@ajou.ac.kr

투고 일자: 2011. 10. 11.

심사 일자: 2011. 11.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11. 30.